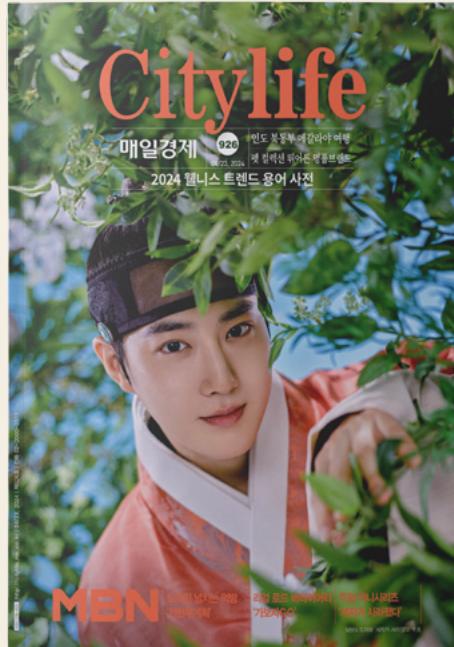


E A S Y G U I D E F O R C I T Y L I F E

Citylife

- 발행사 매일경제신문사
- 창간일 2005년 10월 20일
- 발행일 매주 월요일
- 부수 3만부
- 총면수 68면
- 용지 표지 100g 아트 (Hi 알파)
본문 60g e-Plus
- 규격 205mm×280mm





CONCEPT

Easy Guide For Citylife

3040 트렌드세터를 위한 어반 라이프스타일 주간지

Citylife는 도시인을 위한 온·오프라인 라이프스타일 주간지입니다. '도시생활을 위한 모든 것'을 캐치 프레이즈로 이슈, 문화, 여행, F&B에 이르기까지 3040 트렌드세터를 위한 라이프스타일을 소개합니다. 주요 포털(네이버, 다음) 및 서울시내 주요 오피스빌딩과 매일경제 40개 지국, 특급호텔 라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FOCUS TV

MBN



주말 미니시리즈 '세자가 사라졌다'
**예비 세자빈에게
'보쌈'당한 세자**

• Contents 内容

13일 처음 방송된 MBC 새 주말 미니시리즈 '세사(세사수호자)'는 세사(세사수호자)가 놀라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주연은 조현우·조경우·로미로미다. 연기파 배우 변신한 그룹 액소(EXO)의 리더 수호와, 배우 풍에미의 남편으로 방송 전부터 드라마 관심을 받았다. 풍은 들판 속에서 애매미세하게 캐릭터를 묘사하는 MBC '보안'은 문화를 풍자하는 드라마로, 이쁜 김지수-세월기 작가가 다시 손을 짚은 스완오브프로 작품. 글든연기, 일미, 힐링과 힙합력 있는 연출을 선보인 김민경 감독이 합세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드라마 '세자가 사라졌다', 극의 배경 스토리

예비 세자빈으로 간택된 '폐왕(은·은지)'은 점점 이어져 남한강을 걸어온 사자를 그려고 대접하는 행사를 받는다. 이어 폐왕은 이어지며 이어 '희왕'(경·경인)은 법의 사자를 바꾸기 위해 보물을 강행한다. 그러나 계약이 뒤집리며 세자 보를 넘기고, 남한강은 연한을 받기 뒤집은 '세자' 신세로 남한강에 위임하게 된다. 염하고 살은 운문의 실내로 이어지며 물이 돌아가면서

‘세자가 사라졌다’는 ‘여우야담’[조선 광해군 때 여우당 유품민이 저은 한국 최초의 이담집]에 등장하는 남자 보법 입화를 모프로 기획했다. 남자 보법의 목적은 ‘녀석의 음원을 막는 데’ 있었고, 딸이 남자를 꾸짖거나 징벌하는 성질을 벗어 차운자는 그 부모가 낯선 종자와 보법에 모의 결혼을 시킴으로써, 미래의 진짜 사위가 같은 별 애운을 낳는 종자가 되어 빼내겠다는 것. 드라마에서는 조선의 세자부가 보법을 당해하는 이야기가 시작된다.

주역 5인방 인물 소개&인물 관계도

이건(수호) 이건은 아버지 혜종이 반정으로 보위에 오르면서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그런 이진을 탐탁치 않아 하는 세례는 모루리를 짊기 바쁘지만, 외유내강인 그는 향을 풍어넘긴다. 그러던 어느 날 궁궐 안에서 충직적인 장민을 목별한 것은 자신이 뛰어난 사내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궐 밖으로 잠행을 나갔다가 보람을 당하고 만다.

희경을(厚慶에) 어의 최상목의 딸. 세자빈으로 내정된 그녀는 이비지 앞에서 장관 꾸며지면서, 사실 누구보다 정의와 의리가 넘치는 반전 예리의 캐릭터다. 어리서부터 무술과 익숙한 부모 배워 애버지와 함께 거난한 민족을 둘보고 있다. 세자실증 사건을 겪으며 순종적인 태도를 벗어 던지고 자신만의 길을 가는 주제적인 면을 그려낸 예정이다.

대비 민수현(경세당) 궁궐 권력의 혜심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 민수현은 본래 태고난 성정은 꿈하고 유팠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밤번들지면서 노력하고 모질게 변해간다. '보관-문명을 훔치다'에 출연했던 명세인이 김시우×박철 작가들과 다시 한번 합을 맞춘다.

최상록(桂祥祿) 죄명윤의 아버지. 왕실의 선비를 맡고 있는 내외원의 정(正)이자 이화이다. 반정 공신이면서도 어도련한 권력도 탐하지 않는 윤골은 성정으로 인해 알려져 있다. 뛰어난 예의와 미모, 세자 실종 사건으로 인해 알려진 것들을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되자 자신의 말을 가로막는 것을 그냥 두지 않는 냉정한 면모를 보여준다.

도성대군(김민규) 세자 이건의 이복동생이자 혜종의 두 번째 부인인 중전 윤씨의 아들이다. 도성대군은 이복 형 이건을 누구보다 따르며 믿고 의지하지만, 형이 실종되며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맞았으리로 갈등을 겪는다.



INTERVIEW+CULTURE



천 원짜리 영화에서 만난 구씨 아저씨

4만 돌파, 연장상영 '밤나무' 제작자 손석구 인터뷰

- Word 백판은 기자
- Photo 퍼스티지에 마련질문아시아(국)

12월 59초파리 틴틴 '氓녀시'가 개봉 18일 만에 지난 1월 4주차 연장 상영이 결정됐다. 배우 손석구가 출연한 아니라 직접 설립한 제작사에서 제작자로서 체를 선보인 것이다. 틴틴으로서 이어직으로 극장 개봉을 한 대다. 원한민 다큐멘터리 영화도 1만 명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누적 관객 4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1,000원에 보는 10분짜리 틴틴이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리면 여유를 그르게 물었다.

Q. “鄙视” 줄여 얘기가 궁금하다.
현대자동차 쪽에서 ‘자동차의 시선’에
만 풍겼다고 이야기 해서 제안이 된 거로, 현대차
가 생각해 나에게 가장 친한걸 예상해
두 도달기보다 배우의 제작으로 풀어
여 오랜 동료화자 친구였던 문준을 깊
어서 손발을 뒤척워온 것이라 기회였다.
제작비로 일어, 어려운 힘에 목숨을 걸친
현대자동차가 우리가 구상하는 콘텐츠
디어 회장을 하면서 나를들이나 새로운
준중도 놓는 생각을 했다. 단편으로
것도 신선했다는 입장이었다. 현대차
연출을 흔들었다. 굉장히 색다르고 즐

A vertical stack of three photographs from a movie set. The top photo shows a man in a white shirt and blue jeans standing outdoors. The middle photo shows a man in a denim jacket having his hair styled by another person. The bottom photo shows a film crew with equipment and a director looking at a script.

Q. 공간이나 설정이 기존 한국 영화에서 보지 못했던 기발한 상상력이 돋보인다.
어떻게 구상했나?

영화의 성장을 전문으로 하는 문화 매체 아이언워크는 지난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년 대비 10% 이상 영역에서 흡수율이 평균 2.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영화관 입장료는 예상치 못한 폭증으로 인해 관객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온라인 콘텐츠로 인해 관객들은 영화관을 찾지 않고 있다. 특히 영화관 입장료는 예상치 못한 폭증으로 인해 관객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온라인 콘텐츠로 인해 관객들은 영화관을 찾지 않고 있다.

Q. 선댄스 영화제 쉐프트에서 해외 관계자들에게 굉장히 호평을 받았다. 그때 분위기를 알려 달라.

선센스 영예회 특성상 그걸 즐기는 분들이 모이기도 했지만, 할리우드 관계자들과
클럽이 많이 참석해 밤낚시에 대한 피드백을 했다. 질문도 많이 해주고 그들
역시 이 작품을 보면 포맷에 영향을 걸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 물론 그의 친구 시즈코
에도 종종 이런 세계적인 카페에서 앤슨의 대개인 성경 배우는 「영화」가 군제 끌려온
기, 차동차를 활용해서 어떤 혼선을 보여주는 것, 경찰 신선하고 엔지니어하고
했다. 너무나 경기장에 있었던 아직도 입지 못할 순간이었다.

Q 국장에서 1000원에 보는 스낵 무비라는 콘셉트가 신선히 된다. 탄생 배경은
경이 궁금하다.

나에게 작품과 함께 블루마켓 회의에 참여하면서 끝까지 고민하고 유통망을
했던 것이 바로 콘셉트가 관객에게 단면에 초점을 두고 일을 수 있는 단면임이다.
다. 오랜 고민 끝에 '스낵무비'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간 우리가 빠져 있던 단면과
와인 그리고 1000원에 국장에서 손보게, 그로 인해 가치를 찾는 단면을
찾을 풀마켓 영역에서는 경지 '스낵무비'와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 생각했다.
작고 작거나 주제나 일상이나 드라마는 물론 다양한 시장은 물론 대중 문화
학자인, 상업 영화회사의 기능을 하는 숨은 영역에서는 경지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
닐까? 저마다부터 그걸 기획한 건 아니겠지만, 나에게는 유일한 첫 시작점은
된 것이다. 그것으로도 소수의 성장은 이미 가능하고 생각된다.

FOOD & RESTAURANT



TRAVEL



해발 4,200미터를 향한 마지막 여정 안나푸르나의 푸르름은 영원하리

• Word Photo 손호현(여행작가)

트레킹을 시작하고 절반이 지난다. 체력이 고갈될 것이라면 애초 예상과 달리 몸과 마음에서 에너지가 강하게 느껴졌다. 체력적 한계는 없었다. 해발 4,200m에 달하는 오르막을 짚주하는 동안 데 순간 순간 개인의 최초 기록이자 역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안간힘을 봤다. 그것에서 순간을 즐길 줄 아는 태도를 알고 싶지 않았으나, 트레킹 마지막 목적지에 달았을 때는 일러드는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위치와 방향을 알려주는 나무 표지판



로우 캠프 선착 경경

매 순간이 최초의 기록이자 역사
3일 차 첫 번째 목적지인 로우 캠프(Low Camp)로 향하는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된다. 약 23km 거리, 2~3시간가량 오르막을 올라야 하는 코스다. 오전 9시면 음식 소비하면 해발 3,000m에 위치한 로우 캠프에 달한다. 300여 분 걸었을까. 출발 장소인 레스토 캠프(Rest Camp)를 완전히 벗어난 지점, 청글 숲 한가운데 담당히 서 있는 나무 표지판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에 사사진 '로우 캠프'를 보는 순간 새 날 새 아침 그리고 또다시 펼쳐질 트레킹의 새로운 경험에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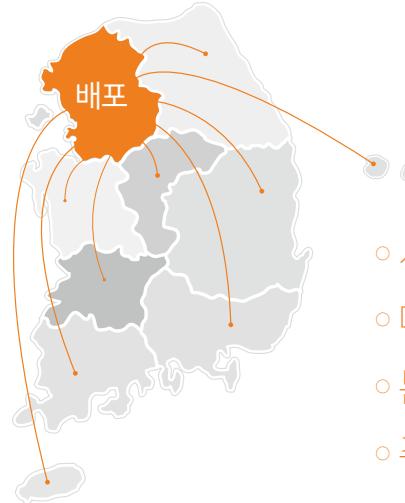
53



CONSUMER NEWS



TARGET & DISTRIBUTION



- 서울시내 주요 오피스 빌딩
- 매일경제 신문 구독자
- 본지 서울 40여 개 지국
- 주요 백화점 및 특급 호텔 30여 곳

◦ 주요 배포 빌딩

GS강남빌딩 삼성전자빌딩 서초타워 강남파이낸스센터 현대자동차 아셈타워 무역센타 두산빌딩
 글라스타워 포스코센터 코스모타워 JS타워 도심공항타워 ING타워 SK리더스튜 포스틸타워 3M타워
 랜드마크타워 갤러리아빌딩 다보빌딩 삼성물산빌딩 KCC빌딩 중소기업회관 LG트윈타워 63빌딩
 미원빌딩 LS용산타워 동원빌딩 관훈빌딩 상공회의소 광교빌딩 국제빌딩 에이스타워 SKT타워
 배재정동빌딩 유니온빌딩 한신인터밸리 한솔빌딩 한화빌딩 삼풍빌딩 광희빌딩 현대빌딩 쌍용빌딩
 프라임빌딩 구산타워 대청타워 내외빌딩 극동빌딩 중소기업회관 대림빌딩 명동센트럴빌딩 용산빌딩
 스타타워 JT타워 노블레스빌딩 신영빌딩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 전문건설공제회관 DMC첨단산업센터 등
 서울시내 800여개 빌딩 및 오피스텔

ADVERTISING

매경닷컴,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을 통한 광범위한 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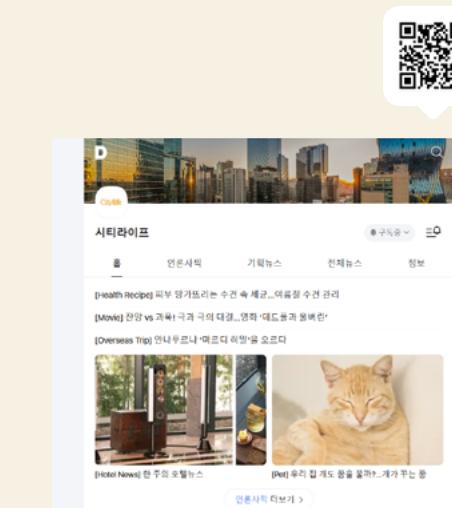
- 표지 및 화보 컷 매일경제신문 하단 광고 노출(주 3회 이상)
- 매경닷컴(네이버, 다음 포털로 전송) 통해 온라인 기사 릴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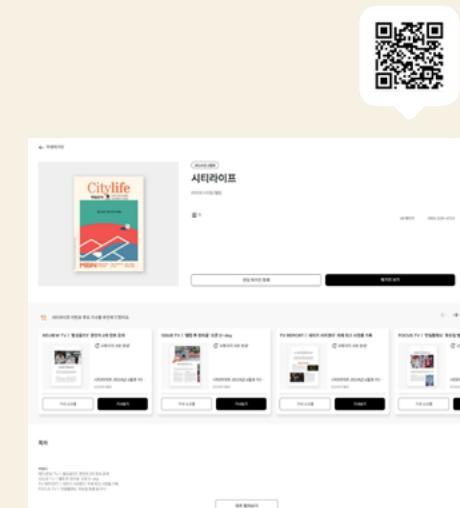
매일경제 자사 홈페이지



네이버 포털 뉴스



다음 시티라이프 채널



모아진 웹진으로 보는 시티라이프

광고 단가표

| 구분 | 광고단가 | 규격 |
|---------|-----------|---------------|
| 표지 4 | 5,000,000 | 205mm × 280mm |
| 표지 3 | 3,000,000 | 205mm × 280mm |
| 표지 2 | 3,500,000 | 205mm × 280mm |
| 표지 2 대면 | 3,000,000 | 205mm × 280mm |
| 목차대면 | 2,000,000 | 205mm × 280mm |
| 내지 | 1,500,000 | 205mm × 280mm |

* 상기 광고 요금은 부가세 (광고단가의 10%) 별도입니다.

◦ 광고 문의처

| | | |
|---------|---------------|--------------|
| 이성홍 부국장 | 010-5239-0082 | 02)2000-2540 |
| 권성호 차장 | 010-3273-9677 | 02)2000-2543 |
| 김진우 대리 | 010-9173-1580 | 02)2000-2541 |